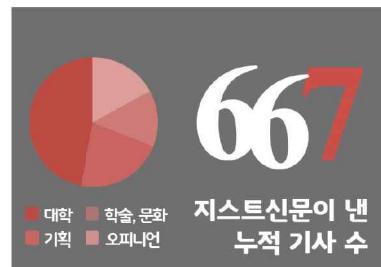




GIST NEWS 50TH

숫자로 알아보는
지 스 트 신 문



〈지스트신문〉이 50호를 맞았다. 2015년 2월 10일 창간한 독립언론 〈지스캐치〉를 전신으로 하는 〈지스트신문〉은 2016년 봄 창간호를 발행하며 GIST의 공식 언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 시작에는 어엿한 대학 언론이라는 목표만으로 도전한 이들이 있었다. 백승혁(기계, 14) 전 편집장과 창간 당시 부주간 장진호 교수를 만났다.

〈지스트신문〉 50호 특별기획
» 8 면

삽화 = 주서현 기자

기숙사 내 지속적인 범죄, 대처 방법은?

반복되는 대학생활관 내 범죄로 학생들의 불안이 늘고 있다. 범죄 발생 시 학교 측은 CCTV를 조회해 벌점을 부과하나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한 기숙사 문화를 위해 학교 측의 노력과 더불어 기숙사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세탁물 도난 ▲택배 절도 ▲동아리방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도난 ▲호실 무단 침입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여름학기, 모 동아리방에서는 키보드, 트랙패드, GPU 등 200만 원가량의 개인 물품이 도난 당했다.

범죄 발생 이후 대처 과정은?

기숙사 내 범죄 발생 시 피해 학생은 학생팀의 도움을 받아 CCTV를 조회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은 학생팀에 상황을

설명해 CCTV 열람을 허가받은 후, 기숙사 내 사감실에서 해당 시간과 장소의 CCTV를 확인한다. 혹은 하우스연합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면 하우스연합회 소속 학생이 그 내용을 학생팀에 전달한다.

학생팀과 하우스연합회는 하우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죄질을 판단해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학생팀과 하우스마스터, 하우스연합회 내 벌점 관리위원이 벌점 기준표 및 생활 수칙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벌점 관리위원은 논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도난의 경우 50점, 이 성 거주 층 출입 시 30점, 타 호실 무단 침입 시 15점의 벌점을 부과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하우스마스터가 추가로 벌점을 가감하기도 한다. 누적 벌점이 50점 이상 쌓이면 기숙사 영구 퇴

사 처리된다.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종종 미해결 상태로 종결된다. 세탁실이나 택배보관실을 제외하면 기숙사 건물 내 CCTV가 충분치 않고, 정황을 발견해도 신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도난을 당했으나 사건 해결을 포기한 모 학생은 “학교 내 CCTV만으로는 절도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워 경찰이 와도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유를 밝혔다.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하우스연합회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 내 CCTV 설치를 요청했다. CCTV 설치를 위해서는 대학생활관 구성원 전원이 설문에 응답해야 한다. CCTV 설치가 사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하우스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CCTV 설치 관련 설문을 각 학번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야시장 행사 당시 본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해 대면 설문을 완료했다. 하우스연합회는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팀에 CCTV 설치를 건의했고 관련 논의를 준비 중이다.

하우스연합회 정선혜 총괄우수장은 “대면 수업 전환으로 대학생활관 거주자가 증가한 것은 반기우나, 도난 및 범죄 소식 역시 늘어 안타깝다. 도덕적인 대학생활관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대학생활관 거주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주의의 양심과 범죄 없는 대학생활관의 모습을 기대한다.

보도

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 기준, 당장은 변화 없어

GIST는 학부생 중 잔류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에 한해 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를 허용한다. 제한적인 기숙사 잔류 조건에 불만의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으나, 학생팀 측은 현행 기준의 즉각적인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 방식, 타당한가

GIST 대학생활관은 입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 학기와 달리 방학 중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대학생 활관 잔류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는 ▲ 연구 인턴 ▲졸업예정자 ▲계절학기 대면 강의 과목 수강자 ▲학생 자치회 ▲ 행정부서 업무지원 및 행사 참여자¹⁾ ▲ 기타 사유가 포함된다. 기타 사유는 귀국이 곤란한 외국인 학생이나 창업동아리처럼 특정 부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활동 등이 있다.

다수의 GIST 학생은 방학 중 대학생 활관 잔류 방식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지스트청원'에 방학 중 자유로운 대학생활관 잔류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록됐으나 최소 응답자 수 미달로 원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에브리타임' 등 학생 간 커뮤니티에서도 잔류 사유를 만족하지

못해 동아리 활동이나 자기 계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학 중 자유로운 대학생활관 잔류, '필요하다' 88%

〈지스트신문〉은 방학 중 자유로운 대학생활관 잔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83명의 학부생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 10.19%p다.

설문에 따르면 방학 중 자유로운 잔류에 대해 88%(73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잔류 하지 못하면 방학 중 본교 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우스마스터,

"개인적인 이유로 잔류는 어려워"

11월 3일에 열린 하우스 오피스아워에서 하우스마스터를 맡은 지구·환경 공학부 김태영 교수는 "대학생활관은 학생의 수업 및 원내 활동 지원을 위한 공적 시설로서, 개인적인 이유로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교수는 "잔류 기준을 설정한 부가적인 이유는 방학동안 원외에서 여

무사유 기숙사 잔류 허용에 대한 의견

삽화 = 송혜근 기자



러 가지 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학생들이 방학을 잘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도 잔류 허용 기준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학생팀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방학 중 잔류 허용의 기준이 존재했다. 유행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논의가 없는 한 잔류 조건은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잔류 사유 범위, 충분하다

설문 결과 중에는 잔류 사유 확대에 관한 의견도 있었으나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무

사유 잔류 허가가 어렵다면 일반 동아리까지 잔류 사유를 넓히거나 학업 계획 제출 등 새로운 기준을 통해 잔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학생팀은 "지난 여름방학 기준 기숙사 잔류 인원은 봄학기 입소자 대비 62%"라며 잔류 사유 범위가 충분히 넓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생팀은 "11월 3일 열린 하우스 오피스아워에서 제기된 계절학기 대면 강의 과목 수강자의 잔류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애리 기자
key030704@gm.gist.ac.kr

1) 지온나래, 피움단(이상 대외협력팀), 지스트신문, GGUN(이상 총보팀), 근로학생(학술정보팀 및 시설 운영팀), G-SURF, 무한도전(이상 학생팀)

비대위, GIST 인근 보도블록 보수 요청해



보도블록 보수 전(좌)과 후(우)의 모습이다.

지난 9월 25일, GIST 학부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안전신문고에 학교 주변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자체의 긍정적 답변과 함께 보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됐으나, 교체 규모가 작아 학생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울퉁불퉁하거나 제조가 되지 않은 보도블록으로 많은 GIST 구성원이 이동에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쌍암 공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사이의 인도는 일부 보도블록이 빠져나와 있거나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 보도블록을 들춰내는 등의 상태로 방치됐다. 한 학생은 "자전거 이용보다 도보로 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며 관리가 부실한 보도블록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비대위는 학교 근처의 노후화된 보도블록 보수를 요청하는 가을학기 신규 사업을 진행했다. 업무를 총괄한 비대위 최효제 위원은 "평소 자전거

를 자주 타고 다녀 노후화된 보도블록 상태를 알고 있었고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보도블록 보수 민원을 제기한 동기를 밝혔다.

지난 9월 25일, 비대위는 GIST와 쌍암공원 사이의 보도블록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안전신문고에 제기했다. 이를 후인 9월 27일에 안전신문고로부터 제초 작업과 보도 보수 작업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보도블록은 보수 사업을 통해 깔끔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지자체는 보도블록이 다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제초 작업 중 잡초 뿌리를 제거하는 데 열중했고, 그 결과 보도 상태는 깨끗하게 변했다. 일부 파손된 보도블록도 교체해 미관상 깔끔하게 복구했다.

다만, 비대위가 진행한 보도블록 보수 사업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는 평도 있다. 보수 범위가 학생들의 요구에 비

해 좁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2월경 한 재학생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근방의 노후화된 보도블록과 파손된 자전거 도로의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은 기록이 있다. 이번 보도블록 교체 사업은 해당 민원이나 평소 구성원들의 요구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돼, 민원 준비 단계에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한편, 비대위는 보도블록 교체 민원 외에도 학생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다. ▲운전면허 학원 체험 ▲코인노래방 시설 관리 ▲스프링 필터 관리 등이 예시다. 비대위 최 위원은 "비대위가 다양한 복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소규모로 진행됐던 사업도 다시 검토하겠다"며 학생 복지에 대한 비대위의 포부를 밝혔다.

김원제 기자
wonjekim@gm.gist.ac.kr

GIST 최대규모 창업 행사, 스타트업나이트 열리다

지난 11월 11일, 오룡관에서 GIST 학생창업서포터즈(이하 GGE, Growing Gist Entrepreneurship) 주관하에 2022년 GIST 스타트업나이트가 개최됐다. 본 행사는 KAIST, UNIST 소속 창업동아리와 이공계 특성화대학 창업 네트워크(이하 FIST)도 함께했다.

GIST 스타트업나이트는 ▲교내/외 창업프로그램 소개 ▲아이디어톤 ▲부스 세션 ▲창업 퀴즈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GGE는 교내외 창업지원 기관 및 창업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아이디어톤 프로그램과 부스 세션에서는 학생 간 교류가 이뤄졌다.

학생 간 네트워킹 현장을 들여다보다

올해 열린 스타트업나이트는 연사 강연 대신 아이디어톤과 부스 세션 등 학생 간 네트워킹 관련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아이디어톤은 일반적인 해커톤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 아이디어톤에 참여한 학생은 무작위로 팀을 이뤄 ‘캠퍼스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팀원



오룡관 1층에서 열린 스타트업나이트 부스 세션의 모습이다.

과 열띤 대화를 나누며 캠퍼스 내 숨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부스 세션에는 ▲GIST, KAIST, UNIST의 창업동아리 ▲FIST ▲학생창업팀 ▲칵테일 동아리 미솔로지스트가 부스를 운영했다.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팀 부스는 창업 관련 퀴즈나 게임을 준비했다. GGE와 미솔로지스트는 음식과 칵테일 등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부스 세션에서 주목할 점은 티 이공계 특성화대학 학생들도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KAIST 소속 창업동아

리 Bluechip과 UNIST 소속 창업동아리 USB는 부스 운영을 비롯한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GIST 학생들과 교류했다. FIST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모여 만든 창업 단체를 퀴즈 형식으로 소개했다.

USB와 FIST 부스 운영에 참여한 UNIST 이동기(인간및시스템공학, 14) 학생은 “FIST를 홍보하고 학생 주도 창업 행사가 활발한 GIST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참여했다”고 행사 참여 계기를 밝혔다. 이 학생은 “창업에 관한 관심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부스 운영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학생 주도로 기획된 스타트업나이트

스타트업나이트는 GGE 구성원 6명이 머리를 맞대어 만든 행사다. 행사를 기획한 GGE 조민지(환경, 19) 리더는 “창업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어울릴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모여 만족스럽다. 다양한 즐길거리로 많은 사람이 창업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조 리더는 “GGE 구성원 대부분이 오프라인 행사 준비는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기획 과정을 전부 GGE 구성원이 맡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준비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편, 조 리더는 “행사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신 창업진흥센터와 GGE 팀원들, 그리고 부스 운영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소회를 풀기도 했다.

GGE는 GIST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나이트 행사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kimseongu22ug@gm.gist.ac.kr

상담 또한 사람 사이의 이야기, GIST 상담센터

중앙도서관을 지나면 제1학생회관 뒤편에 사뭇 분위기가 다른 단층 건물이 나온다. 쌀쌀한 연말에도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든든히 서 있는 GIST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다. <지스트신문>은 상담센터 박행자 상담사와 또래상담을 이용해 본 내담자를 만났다.

상담센터를 소개해주세요.

GIST 상담센터는 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교원, 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가 개인 상담과 더불어 집단상담, 심리검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기 초와 시험 기간에는 성격검사와 간식 응원 행사를 진행하며 매년 5월 정신건강 주간에는 보물찾기 행사를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돋는다.

개인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고 어떤 주제로 진행하나요?

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개인상담 신청하기’ 탭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담센터 내선 번호(2980)로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정해진 주제는 없으며, 어떤 이야기든 함께 나눌 수 있다. 상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소 고민하던 주제를 부담 없이 꺼내면 좋겠다.

상담 내용이 기록에 남나요?

상담자만 열람할 수 있는 상담센터 내부 자료에 상담 내용이 기록된다. 하지만 내담자의 일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공유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고민이 너무 사소한 거 아닐까요?

문제의 경중은 따질 수 없다. 크게 다치지 않아도 사전에 겹친을 위해 병원에 가듯 고민이 드는 순간 부담 없이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좋겠다.

상담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다. 과도하게 정리된 대화는 오히려 정서 교류에 방해가 된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재학생이 상담사가 되는 또래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방학과 공휴일, 시험 기간을 제외한 평일 오후 8시~11시에 대학 C동에 위치한 또래상담실에 방문하면 또래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지스트신문>은 또래상담사와 고민을 나눠본 의문의 내담자를 만났다.



또래상담에서 어떤 주제로 상담했나요?

전공 선택 직전에 진로 고민을 나눴으며 버클리 여름학기 교환학생 파견 전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다.

또래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됐나요?

또래상담이라고 긴장할 것 없다. 선배와 편하게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별도의 예약 없이 또래상담실에 방문하면 또래상담사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래상담이라서 특별히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길을 걸어간 선배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특히, 추상

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버클리 교환 학기를 가기 전에는 준비물, 날씨, 맛집을 물어보기도 했다. 한국에선 무더운 시기라 따뜻한 옷을 챙겨갈 생각은 못 했는데 또래상담으로 들은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 상담이다 보니 무거운 주제만 떠올리기 쉬운데, 평소 가진 가벼운 궁금증이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유지연 기자
jiyeonlyu@gm.gist.ac.kr

보도

HPC-AI 공용인프라 데이터센터, 시범 운영 개시

고성능컴퓨팅 - 인공지능 (HPC-AI)¹⁾ 기반 공용인프라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가 GIST AI대학원에 문을 열었다.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슈퍼컴퓨터는 기존 국내 대학 컴퓨팅 인프라보다 뛰어난 성능의 HPC-AI 컴퓨팅을 지원해 각종 AI 연구에 활용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캠퍼스 후문에 건축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데이터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선발대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6일, GIST AI대학원에서 데이터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GIST가 협력해 2023년까지 약 1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HPC-AI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갖췄다. 해당 센터는 GIST,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의 AI융합대학 및 국내 산학연이 교육·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AI대학원 산하의 슈퍼컴퓨팅센터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사용 신청 심사 등을 주관한다. 또한 장비 사용 전 데이터센터 장비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11월 기준 전 세계 178위에 달하며, 국내에서는 6위에 해당한다. 해당 슈퍼컴퓨터는 40개의 계산 노드로 구성됐으며, 각 노드당 8개씩 총 320개의 GPU가 최대 6PF(페타플롭스)²⁾의 연산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총 10PB(페타바이트)의 저장공간과 200Gbps의 초고속 네트워킹 성능이 갖춰졌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국내 인프라를 뛰어넘는 초당 150GB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해 멀티-노드 HPC-AI 컴퓨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김종원 AI대학원장 겸 슈퍼컴

퓨팅센터장은 GIST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데이터센터 설립 과정이 순조로웠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컴퓨터 설치 공간, 전기 시설 등 기초 시설부터 장비 설치까지 모두 1년 내로 완료했다”며 성과를 드러냈다. 또한, 김 센터장은 “환율이 오르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며 컴퓨터 장비 역시 비싸졌다. 우리는 3년에 걸쳐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시설과 장비의 계약을 작년 말에 일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장비 가격 인상 전 구매 절차가 마무리됐기에 소요 예산 증가를 피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센터 구축 시기도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이런 선택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인프라를 완성했다. 이로 인한 이득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설을 사용하는 4개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 누릴 것”이라며 그 의의를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GIST에 구축된 데이터센터가 집적단지의 선별대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집적단지에는 GIST 데이터센터의 10배 규모의 시설이 건설 중이며, 2023년부터 가능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먼저 GIST에서 광주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초반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을 할 것이



데이터센터 개소식에 참여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다. 또한 내년 후반에 집적단지의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서로 연동하여 협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AI 컴퓨팅 지원이 광주를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AI대학원 데이터센터의 마중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GIST 및 집적단지가 AI 관련 창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의 슈퍼컴퓨팅 인프라는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집적단지의 특화주제를 연구하는 기반이 된다. 김 센터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해 기존 실험실의 서버로는 할 수 없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집적단지의 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집적단지

의 연구 특화주제 중 자동차에 주목했다. 그는 “GIST 슈퍼컴퓨팅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7월 지정한 자율주행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다. 데이터센터를 활용한다면 해당 분야를 집중해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김 센터장은 “AI 기술은 결국 도구”라며, 이를 잘 사용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학생들이 AI라는 도구를 상황에 맞게 쓰고 더욱 발전시키며 지역의 AI 산업생태계를 키워나가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준서 기자
pjalex122@gm.gist.ac.kr

1) 고성능컴퓨팅-인공지능(HPC-AI): 대규모 인공지능 연산 문제를 풀기 위해 개별 노드(컴퓨터)를 초고속 네트워킹으로 묶어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해 마치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것.
2) PF(페타플롭스): 플롭스는 컴퓨터의 연산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로, 1초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의 횟수를 의미함. 1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를 뜻함.

GIST, 청렴도 개선 위해 청렴특위 출범

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IST 직원이 결재자 표시 및 총장 직인이 빠진 서류로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GIST는 올해 2월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청렴특위)를 조직해 총장실을 중심으로 한 청렴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안자·결재자 누락,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청렴 문제

지난 10월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IST 기술사업화센터 소속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

원이 GIST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해당 재단에 등록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가 문제의 기업이었다. 두 기업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협조 공문에서 기안자, 결재자가 빠졌다. 데미안랩 공문의 경우, 총장 명의의 공문임에도 총장이 아닌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혔다. 결국, GIST는 국정감사에서 두 기업의 해당 공문서가 정상적인 공문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시인했다.

연구소기업 허위등록 사건 발생, 계속되는 청렴 문제 예방하려면

GIST 노동조합 이충기 위원장은 연구소 사건의 경과와 징계 결과 공개,

감사실의 역할 확대를 통해 부정부패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청렴 문제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서도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감사실에서 경과를 정확히 조사하고 사건 경위와 징계 결과를 공지하는 것이 부패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실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 외에도 감사실이 직접 나서서 제도적인 공백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실에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문서의 결재 과정, 지침상의 미비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은 할 수 있다”며 감사실 업무의 확대를 요구했다.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하다

총장실은 지속되는 청렴 문제 해결을 위해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청렴특위는 3년 연속 최하등급인 GIST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신설됐다.

반복되는 GIST 청렴문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4면에서 이어짐〉

청렴특위는 총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청렴도 개선 업무를 각 부처에게 지시하고 청렴도 개선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GIST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청렴특위 김상윤 위원장은 “청렴특위의 역할은 구성원과 함께 노력해 GIST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특위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 추진한 실적을 보고했다. 그 결과 청렴위가 개설된 이후 30건의 청렴 과제를 이행했다. 김 위원장은 “직군별로 간담회 혹은 교육 활동을 매우 활발히 추진했다. 이는 많은 구성원이 청렴 문제의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윤리 준수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청렴특위는 ‘올바른 연구비 사용법’, ‘논문 저자 표시 권고사항’ 등의 자료를 각 연구실 대표에게 배포했다. 또한, GIST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게시판을 신설했다.

한편, 김기선 총장은 이번 연구소기업 허위등록 사건은 청렴특위 개설 이전인 2016년에 발생했던 일이라며 청렴특위의 역할 부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요청으로 GIST에서 설립한 연구소기업 현황을 검토하던 중 2016년 당시 불법 행정처리 문제가 있었음을 원내에서 면



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초 특별 감사를 시행했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총장실, 소통 창구 늘리고 교육 확대

더불어, 총장실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렴 직원 교육 확대 ▲GIST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¹⁾ 도입 ▲소통 창구 확대 방안을 실행 중이다.

먼저, 총장실은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을 확대했다. 작년 4회였던 윤리 및 청렴 관련 교육을 올해 7회로 늘렸다. 총장실은 “올해 청렴 교육과 이해충돌 방지 교육의 이수율이 82.4%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이어, 총장실은 GIST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GIST의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김 총장은 “GIST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내부 신고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장실은 ‘런치 독’과 ‘Open Tuesday’ 등을 통해 소통 창구를 넓혔다. 런치 톡은 청렴과 연구비 등에 관한 각 연구실 대표의 의견을 총장과 부총장이 듣는 자리다. Open Tuesday는 매주 화요일 사전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과의 면담이 진행되는 날이다. 김 총장은 “각 소통 창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사실 확인과 현황 파악을 거친 후 이에 적합한 후속 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학생들에게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총장실은 제도적 보완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GIST 기술사업화센터의 직원들은

센터 자체에서 선별하는 만큼 직원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총장실은 이에 대해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조직 변화와 함께 구성원의 청렴 의식 제고와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은 GIST의 청렴도를 위해

김 총장은 “청렴한 환경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성원의 동참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문제를 덮고 억지로 이해하려는 그릇된 공감보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렴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렴특위 김상윤 위원장 역시 “GIST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경영진, 직원, 교수 등 GIST 구성원 모두가 청렴하겠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원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반면, 이종기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모범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청렴특위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것 외에도 경영진의 모범이 중요하다”며 경영진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양태규 기자
taegyu1105@gm.gist.ac.kr

1)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는 제도

3년 만에 돌아온 대학 축제, 루미에르



재학생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지난 23일,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축제 ‘루미에르’가 개최됐다. 버스와 공연으로 구성된 축제는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12시부터 버스가 운영됐다. 버스는 ▲페이스페인팅 ▲사진 촬영 ▲풍선 다트 ▲사과 사탕 만들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타로 등의 즐길거리로 채워졌다. 전통 음식과 의상 등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버스

도 마련됐다. 축제 참가자들은 푸드 트럭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겼다.

4시부터 재학생과 연예인의 공연이 이뤄졌다. 재학생 공연은 학부생 버스킹, 밴드 동아리, 힙합 동아리, 댄스 동아리, 대학원생 밴드 동아리, 개인 신.dataSource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공연 사이에는 사회자의 진행 하에 관객의 즉석 장기자랑 시간도 가졌다. 재학생 공연이 끝난 후 연예인 초청 공연이 있었다. 퍼치, 한

요한, 수퍼비,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프로미스나인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축제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행사다. 행사를 기획한 문화행사위원회(이하 문행위) 오세훈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면 행사인 만큼 모든 학생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돋고자 했다. 코로나19 이전 축제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기획의 도를 밝혔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10.29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며 축제 일정이 미뤄졌다. 헬리원 관련 이벤트를 없애며 콘셉트가 대폭 변경됐다. 오 위원장은 “귀신의 집, 무네포차 등 기존에 기획했던 일부 부스가 사라졌다. 학생들이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대체 콘텐츠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물었

다. 서은원(기초, 22) 학생은 “질 좋은 공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행복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무대 앞에 자리한 특정 연예인 팬덤이 다른 공연에는 호응하지 않아 학생들이 즐기기 어려웠다는 불만도 존재했다. 김범준(물리, 21) 학생은 “다른 대학처럼 무대 앞 재학생 구역을 마련하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위원장은 “모든 문행위 위원들이 대면 축제를 처음 준비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도 공연자, 버스 운영자, 관객 덕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문행위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 더욱 재밌고 발전된 행사로 돌아오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연우 기자
ywkim0412@gm.gist.ac.kr

사회

레고랜드 사태와 후폭풍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춘천의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 선택으로 대한민국 채권의 신용도가 대폭락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 전개와 원인을 조망한다.

레고랜드 사건의 전개

2010년 강원도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하 멀린 그룹)과 춘천에 레고랜드 유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MOA를 체결했다. 2008년, 김진선 당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 동아시아 관광 하브를 세운다는 계획하에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 계약을 맺었다.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 이천, 인천, 대전 등 다양한 지자체와 경쟁한 결과다. 부지 선정 과정과 종도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 보존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2022년 5월 5일 정식 개장했다.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는 멀린 그룹과 협약해 2012년 특수목적법인(SPC)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강원도가 지분의 44%, 멀린 그룹이 22.5%, 주식회사 한국 고용정보가 9%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주식으로 19.64%를 보유하고 있다.

레고랜드는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 유동화전문회사인 아이월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 원어치의 자산 유동화 목적의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김원도는 여기에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이 자산 유동화 증권 중 412억 원을 2022년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상환하지 못하면서 투자

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 의상실 상태가 됐다. 레고랜드 개발을 진행하며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으로 인한 공사의 연기, 교통 문제로 인한 추가 교통로 건설, 강원도의 주차장 건설 약정 등 다양한 요인들로 공사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412억 원을 갚을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이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주변 대지 매각을 필두로 한 대출 상환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도지사가 교체됐고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지 매각 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채권이란

채권은 쉽게 말해 거래 할 수 있는 빚문서다. 돈을 빌리는 주체가 정부, 지방 정부, 공기업, 회사 등 개인보다 신용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채권의 가격은 발행이율, 만기일, 신용등급 등에 의해 정해진다.

NICE 신용평가는 단기 신용등급을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A1 등급은 적기 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할 수 있는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B등급은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는 뜻이며, C등급은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의미다. D등급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채권



(사진 제공 = 레고랜드 코리아)

의 수익률은 높아진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보증해주는 채권들은 대부분 A1 등급으로 책정돼 있다. 높은 신용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신용평가가 좋을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며, 은행, 펀드, 연금과 같은 큰 자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업회생 추진의 여파

이번 강원도의 기업회생 추진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어음(ABCP)은 A1 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은 국채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과 다른 기업 채권의 신뢰도까지 크게 하락했다.

기업회생 추진 결과, 2022년 10월 5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어음(ABCP)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회사채 1,000억 원,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1,200억 원을 포함한 다수 회사채와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권이 대부분 유찰됐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

한 자금 수급이 어려워졌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이 매우 중요한 부동산 업계 중 PF(Project Finance)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PF란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시행사에 대출해주고 이를 받는 형태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금리 상승과 맞물려 채권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를 비롯한 PF에 관련된 회사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둔촌주공 PF가 7,0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을 실패한 것, 음성군 보증 채권이 차환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종합하자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을 투자자들이 덜 신뢰하게 됐으며, 이는 채권가격의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의 채권은 지방자보다 이자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기업에 디큰 악영향을 미쳤다.

김성우 기자
swkim0211@gm.gist.ac.kr

광주·전남 가뭄 심각…제한 급수 현실 되나

광주·전남 지역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30% 근처로 떨어져 내년 중 제한 급수를 피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스트신문>은 이번 가뭄의 심각성과 제한 급수 시 GIST가 받을 영향을 살펴봤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 24일까지 광주 지역 누적 강수량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인 727.3mm다. 연중 비

가 가장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도 광주·전남 지역 하늘은 맑았었다. 광주 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호와 주암호의 저수율은 지난 11월 24일 기준 각각 31.2%와 31.0%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동복호는 2023년 3월, 주암호는 2023년 5월 고갈될 위기다.

가뭄이 지속되면 광주광역시는 '물 부족 위기 대응 사전 비상 행동 단계'에 돌입했다. 전남 일부 도서 지역은 이미 제한 급수를 시행했다. 광주광역시청과 전라남도청은 지역 주민에

제한 급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GIST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 직원은 "비가 많이 내리기 전까지 수돗물을 최대한 아껴 급수 중단 사태를 늦춰야 한다"며 물 절약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에 제한 급수나 수압 조절 등 조치가 이뤄지면 GIST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시설팀 김왕국 직원은 "원내 물탱크에 물을 비축하면 겨울 급수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 급수 강도가 높아지거나 수압을 낮추는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면 급수가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제한 급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GIST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 직원은 "비가 많이 내리기 전까지 수돗물을 최대한 아껴 급수 중단 사태를 늦춰야 한다"며 물 절약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kimseongu22ug@gm.gist.ac.kr

논문 피인용 지수 세계 4위, 다른 지표는?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 세계 4위에도 불구하고, GIST는 QS, 중앙일보 등의 대학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GIST 대외협력팀은 저평가된 대학지표에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GIST가 집중하는 대학평가

다양한 교육 기관, 교육 평가 기관, 언론사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지표를 제작해 매년 대학 평가를 발표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내 대학평가 중 가장 신뢰받는 평가이며, 해외 대학평가로는 QS 세계대학평가, THE 세계대학평가 등 있다.

GIST는 주로 QS와 THE의 세계 및 아시아 대학평가를 대외 평가의 지표로 삼는다. 대학 평가 항목 중 특히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 ▲교원당 논문 수 ▲논문당 피인용 수 등의 논문 실적 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공학 계열 9위, 자연과학 계열 14위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중앙일보에서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평가로 한국 최초의 대학평가이다. 이는 종합평가와 계열평가로 이뤄진다. 종합평가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등 6개 계열 중 4개 이상을 가진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계열평가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4개 계열별로 진행된다.

G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POS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종합평가가 아닌 계열평가(자연과학, 공학 계열)에서만 평가된다. 종합평가는 300점 만점으로 ▲교수 연구 95점 ▲교육여건 95점 ▲학생 교육 및 성과 80점 ▲평판도 30점으로 이뤄진 4개 부문에 33개 세부 지표로 평가한다. 계열평가는 종합평가 중 각 계열에 맞는 지표를 선정해 가중치를 다르게 두어 평가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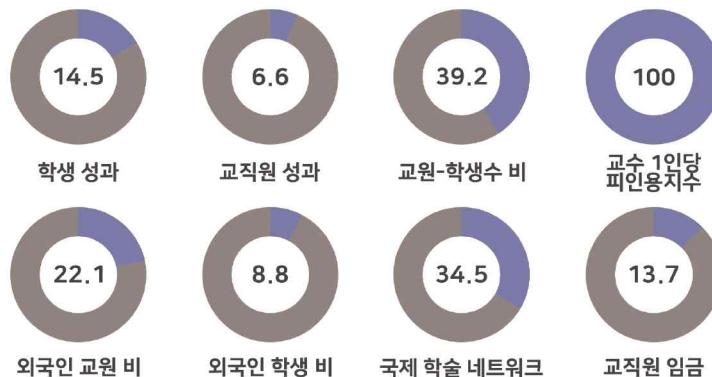
GIST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공학 계열에서 300점 만점에 157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공학 계열평가에서 POSTECH은 205점으로 1위, KAIST는 204점으로 2위, UNIST는 170점으로 6위를 차지했다. 또한, 자

2023 QS 세계대학 평가 대학 순위

삽화 = 최정은 기자

순위	대학	총점 (100점 만점)
41위	KAIST	79.3
71위	POSTECH	67.7
197위	UNIST	44.1
288위	GIST	36.0

GIST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 (100점 만점)



연과 계열에서는 300점 만점에 125점으로 14위를 차지했다. 자연과학 계열평가에서는 KAIST가 186점으로 1위, POSTECH은 183점으로 2위, UNIST는 162점으로 4위로 평가됐다. 한편, DGIST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평가 결과, GIST는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모두 등록금 대비 장학금 및 등록금 대비 교육비가 전국 1위였다. 교수가 기업 등에 기술을 이전해 얻은 수익도 공학 계열은 전국 4위, 자연과학 계열은 전국 3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양 계열의 교육여건 항목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학생 교육 지표에서는 공학 계열 27위, 자연과학 계열 39위에 그쳤다.

저조한 학생 성과 지표의 원인으로는 GIST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 및 낮은 취업 유지율이 짚힌다.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부분의 지표는 순수 취업률, 취업 유지율, 중도 포기율, 외국인 학생 중도 포기율, 학생 창업 성과, 창업 교육 시간, 현

장실습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친다. 대외협력팀은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은 GIST가 취업률과 취업 유지율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분석한다.

QS 대학평가에서의 GIST

QS 대학평가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에서 발표하는 대학 순위이다. 이는 ▲학계 평판 40점 ▲교원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20점 ▲교원 대 학생 비율 20점 ▲졸업생 평판 10점 ▲외국인 교원 비율 5점 ▲외국인 학생 비율 5점의 항목당 가중치로 구성된다.

GIST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총 100점 만점 중 36점으로 세계 1,422개 대학 중 288위, 국내 41개 대학 중 10위를 차지했다. 본 평가에서 KAIST는 41위, POSTECH은 72위, UNIST는 197위이다. 또한, GIST는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아시아 760개 대학 중 94위, 국내 89개 대학 중 15위를 차지했다.

GIST는 교원 1인당 논문 피

GIST의 지표 관리와 계획수립

GIST 대외협력팀은 학생 성과 지표가 저조한 이유를 과학기술원 특성상 취업률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업률 지표는 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외국인 학생을 제외한 졸업생을 기준으로 취업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업률 및 취업 유지율이 타 대학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과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해 산학 인턴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낮은 취업률로 이어진다. 실제로, 중앙일보 대학평가 취업률 항목에서 자연과학 분야 39개 대학 중 UNIST, KAIST, GIST가 각각 36, 38, 39위를 기록했다.

GIST는 취업률 항목의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미취업자, 취업 미확인자, 해외거주자, 해외취업자 중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는 미취업 인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학생 취업 담당 부서인 학생팀에서 졸업자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통해 통계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의 취업률 지표는 2년 전 졸업자 기준으로 통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GIST의 대응이 아직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시기별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순수 취업률을 늘리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대외협력팀은 대학지표 항목 중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그 예시로 ▲연구구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분석 도구의 도입 ▲평판도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 국외 홍보 기사 발표 ▲대학 평가기관 세미나 참석 ▲해외 연구자 대상 GIST 홍보 메일 발송 등이 있다. 대외협력팀은 “GIST에서는 대학 평가 TF를 운영하며 대학평가 순위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GIST의 대학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50호 특별기획

〈지스트신문〉의 처음을 함께한 이들을 만나다



백승혁 초대 편집장(좌)과 이은찬 현 편집장(우)이 각자 발행했던 신문을 들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언론 불모지에서 공식 언론 창간까지 - 백승혁 전 편집장 인터뷰

백승혁 전 편집장(14, 기계)은 학부 재학 시절 〈지스트신문〉의 전신인 독립언론 〈시스캐치〉를 창간해, 2016년 2월 창간준비로부터 2016년 5월 제3호까지 편집장을 맡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시스캐치〉와 〈지스트신문〉을 처음 만들었던 학생 중 한 명이고, 지금은 기계공학부를 졸업해 GIST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5년 차이다.

신문사 창간 계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둘러보니 학보사를 갖춘 곳이 보통이었다. 문득 ‘왜 우리 학교에는 신문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당시 학내 소통의 장은 단발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정도가 전부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구성원 간 의견을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가고, 생산적인 토의가 이뤄지길 바랐다. 이를 위해선 믿을 만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뜻을 함께할 학생을 모아 창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신문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타 대학 신문사를 답사하며 6개월간 준비한 끝에 독립언론 형태로 〈시스캐치〉를 창간했다. 처음 두 학기 정도는 인터넷 기사만을 발행했다.

그동안 신문사 창간 제안서를 작성하고 신문에 관한 공부도 하며 공식 언론 사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다행히 여러 교수님과 학부장님, 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GIST 공식 언론으로의 발족이 승인됐다. 이후 2016년 봄, 신문사에 예산이 할당되고 신문사 실무 마련됐다.

언론사를 혼자 조직하는 게 힘들지는 않았나?

당시에는 짧은 날의 폐기기 있었다. 교수님이나 직원분들, 동료 학생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덕분에 가능했다.

신문사를 공식 단체로 만드는 일이 재밌었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창간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기사 작성과 신입 기자 선발 등이 전부 처음 겪는 일이어서 힘들었다.

당시 부주간 교수님과 언론홍보팀 선생님께서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언론홍보팀에 기자 출신인 이석호 선생님이 계셨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시간을 내셔서 한 학기 동안 기사 작성법을 알려주셨다. 창간 후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편집장 재임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은?

창간호 때 독자들의 지문과 함께 창간 축하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지나가다 지문을 찍어준 사람들도 고마웠고, 최종 결과물이 예뻐 마음에 들었다. 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써주신 축하와 응원의 글로 힘을 얻었다.

새로 배치한 가판대에 창간호를 놓아두고 앞으로의 신문사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준비해갔다. 창간 직후에는 창간일에 맞추느라 보람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 나중에 새로 나온 신문을 가판대에 배포하러 간 기자들에게 ‘신문 다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신문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사는 적절한 시기에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가치가 있다. 지면 발행이 줄더라도,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발행해도 좋다. 독자가 기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기 바란다.

어떤 사회든 언론사는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에게 더 가볍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가 바뀌어 긴 글을 읽지 않으려 하는 독자들이 많다. 독자에게 바라기보다 신문이 달라져야 한다.

〈지스트신문〉의 기반을 함께 다지다

- 정진호 교수 인터뷰

기초교육학부 정진호 교수는 〈지스트신문〉 창간 당시 부주간을 맡아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 제8호 발행까지 함께했다. 〈지스트신문〉의 기반을 함께 다졌던 정진호 교수를 만나 50호 발행을 맞은 소회를 물었다.

학생들이 처음 신문을 제작하고자 찾아왔을 때, 돋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다른 학교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저널리즘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GIST는 설립 초기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것이 부족했고, 학보사의 부재도 그중 하나였다. 한편으로는 KAIST나 POSTECH을 능가해, MIT나 Caltech에 버금가는 저널리즘의 학보사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GIST는 저널리즘에 관심 있는 학생이 부족해 신문을 낼 여건이 아니었던 만큼, 학보사 창립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학보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은 어떠했나?

많은 시간을 신문사 학생들과 함께 보내며 신문 제작의 상당 부분 관여했다. 모두 열정 하나로 시작했기에 신문사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신문 전반적인 구성에 관한 조언부터 어조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반론의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 교차검증을 해야 할지 등 내용 측면을 주로 봤다. 더불어 일정 조율 및 기술 측면의 조정까지 맡았다. 밤새 작업하며 야식을 먹고 야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추억이 떠오른다.

창간 당시 학교 및 구성원의 반응은 어땠나?

많은 이들이 학보사의 등장을 환영했지만,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기사를 쓰도록 학생들을 지도했다. 신문 발행이 늦어지더라도 편파적이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기사는 다시 취재하게 함으로써 학보의 활동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했다. 하위 사실을 담지 않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 덕분에 〈지스트신문〉의 창립을 많은 이들이 반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50호를 맞이한 소회가 있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았지만, 지금까지 매년 신입 부원이 생기고 신문이 잘 발행됨이 매우 뿌듯하고 기적 같다. 요즈음도 매 호 신문이 발행되면 꼭꼭히 읽어보고, 모아서 보관한

다. 신문사 구성원은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기를 바라고, 학교 구성원은 제목이라도 읽어보며 신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신문사의 과제가 있다면?

비판과 흥보, 그리고 정보와 소통 기능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 GIST의 독립언론이자 학보사로서의 올바른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신문은 하나님의 정당이다’라는 말처럼 신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학교의 문제점을 교정케 하는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에 더불어, 구성원들이 학교에 애정을 갖게 하는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한편, 〈지스트신문〉이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를 넘어섰으면 좋겠다. 학생과 교수 사이, 연구 실 사이, 경영진과 학교 구성원 사이의 의견을 펼치고 교환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길 소망한다.

또한, 최신 과학 이슈에 관한 소식을 자주 다뤘으면 좋겠다. 해당 이슈를 위한 지면을 고정으로 할당하는 방법도 있으며, 과학 이슈를 다루는 타 저널과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다.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독자 또한 학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참여한다는 자세로 신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투고도 하면 좋겠다. 부정적인 소식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미담에도 이목을 집중하길 바라며, 신문을 전문성을 기르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길 바란다.

8번째 바톤을 이어받다

- 이은찬 편집장의 한 마디

50호를 발행하면서 신문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렸다. 종이 50장의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듯싶었다. 신문 한 호를 발행할 때마다 신문 한 장에 놓아둔 신문사 구성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상당함을 몸소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곳 〈지스트신문〉에서 학생들만의 저널리즘이 50번씩이나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지스트신문〉이 앞으로도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히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학보사가 되길 바란다. 겸손과 수용의 태도로 내부에서부터 혁신하며 성장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신문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GIST 교육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다

교육혁신상은 GIST 교육혁신센터가 교수의 수업 혁신 의지를 북돋기 위해 2020년에 신설한 상이다. 교육혁신센터는 수업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춘 정성 평가를 통해 매년 교수 3인에게 교육혁신상을 수여한다. 〈지스트신문〉은 교육혁신상 수상자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홍노 교수, 기계공학과 허필원 교수, 융합기술학제학부 송은성 교수를 만나 수업 방식과 교육철학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홍노 교수는 2021년에 교육혁신상을 수상했고, 기계공학과 허필원 교수와 융합기술학제학부 송은성 교수는 올해 11월에 수상했다.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이홍노 교수 인터뷰

수업 방식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관점 속 이해를 돋기 위해 전문가의 입을 빌려 수업을 진행해봤다. 블록체인은 정치, 경제, 법 등 다양한 학문을 망라하기 때문에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블록체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9년에 강의한 ‘전기전자컴퓨터특론’에서 오정근 전 대학교수와 구태언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조명했다.

4대 과기원 중 처음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 STAR-MOOC 강의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STAR-MOOC에서 ‘블록체인과 미래사회’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여는 미래’ 강의를 진행했다.

본인만의 교육철학은?

본인의 지식을 누구나 배울 수 있게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STAR-MOOC에 많은 강의를 올렸다. GIST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과기원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많은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볼 수 있게끔 유튜브에도 강의를 게시했다.

GIST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학교 차원에서 GIST 학생의 창업 진출을 돋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기준 구조에서 확장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 폭을 넓혀 효과적인 선순환을 구축할 것이다.

“자유로움 속 정보 공유 추구한다”,
허필원 교수 인터뷰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사실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GIST에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기존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했다. 교육혁신상을 받아 그런 도전이 성공적으로 증명된 것 같아 너무 감사했다.

교습 과정에서

어떠한 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INGE 사업¹⁾에 선정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 1학기엔 ‘기계 신호 및 시스템’ 과목을 프로젝트로 진행했다. INGE 사업에서 지원받은 조교가 학생들의 수준 높은 프로젝트 완성을 도왔다. 한 학생은 악기 소리에 반응해 악보를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다양한 학문과 융합해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 흥미로웠다.

수업 시작 전 약 10분 동안 학생이 수업을 진행하는 ‘Mini Lecture’를 진행했다. 단순히 수업을 듣기보다 학생이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강의하는 것이 완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식이라

고 생각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았다는 소감을 전해 들어 뿌듯했다.

본인만의 교육철학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녹화한 강의를 학생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했다.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강의를 추구한다. 수업 중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분위기인 미국과 달리 질문이 익숙지 않은 한국 학생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수강생 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생 사이의 정보 공유 및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뤄졌다.

GIST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GIST 교수진이 MOOC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GIST는 교수마다 담당하는 과목의 수가 다른 학교보다 적은 편인데 교원 자체의 수도 적어 개설되는 강의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적극적으로 MOOC 강의를 활용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MOOC 강의는 교수가 강의를 개설할 때 부담이 덜하며,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 기회와 편리함을 제공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창의성 바탕으로 융합적 활동을”,
송은성 교수 인터뷰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생각지 못한 수상이라 매우 기쁘다. 수업 혁신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 더욱 의미 있다. MOOC 수업 여러 개와 INGE 사업을 통해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한 많은 학생이 새롭고 흥미로

웠다는 평을 남긴 것이 기억난다.

수업 방식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업 대부분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프로젝트 주제는 학생의 전공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요즘 앱 개발 창업을 많이 시도하는 추세로 보여 나의 ‘번개장터’ 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MOOC 강의를 진행했다. 최근 스마트폰이 상용화돼 앱 개발을 쉽게 배울 수 있지만 GIST에서는 기회가 적다고 느꼈다. 개발뿐만 아니라 기획, 디자인까지도 훈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다. 시간이 한정돼 안드로이드 앱 중심으로 강의한 점이 아쉽다.

본인만의 교육철학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기존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GIST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실무와 직접 연결되는 강의 개설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수업이 실무와 연결이 어려워 불만을 토로했던 학생들이 많다.

교수가 연구뿐 아니라 교육에도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IST 학부에서 이뤄지는 강의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좁다는 학생 의견이 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수(教授)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GIST 교수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면 좋겠다.

김원재 기자
wonjekim@gm.gist.ac.kr

1) 교내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 및 수업방식을 적용한 교수법 개발 사업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궁금한 일이 있나요? 지스트신문에 취재 요청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유로운 주제의 기고문 환영합니다!

지스트신문이 학내구성원들의 다양한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Email) editor@gist.ac.kr
Tel) 062-715-5810



종합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함께하는 STadium 개최

지난 11월 12일, 'STadium(이하 스타디움)'이 KAIST에서 개최됐다.

3년 만에 돌아온 화합의 장

스타디움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 연합 체육대회다. 2017년부터 시작된 본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됐다. 대회를 총괄한 스타디움 특임위원회 KAIST 정인홍(생명과학과, 20) 위원장은 “본 행사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부생 간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스타디움에서는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5개 종목 경기가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 참여한 23개 팀이 문화공연으로 대회에 즐거움을 더했다. GIST는 5개 종목 대표 선수단과 함께 휴강이스프레스, 막무가내, 이그니션 3개 공연동아리가 참가했다.

야구 경기에서 나온 값진 준우승

GIST의 첫 승은 야구 경기에서 나왔다. 4강전 상대는 예선에서 DGIST를 3-8로 꺾고 올라온 UNIST였다. 경기 내내 팽팽한 분위기가 유지됐으나 GIST가 2회말 뽑아낸 1점이 결승점이 되며 0-1 승리를 만들어냈다.

결승에 진출하며 GIST는 스타디움

사상 첫 종목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나 끝내 KAIST를 넘지 못했다. 1회초부터 6점을 내준 GIST는 친스마다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9-0으로 패배했다. 본 경기에 참여한 남윤걸(소재, 21) 학생은 “학업이 바쁘고, 중간에 부상을 입기도 해 훈련량이 부족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꼭 우승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나머지 종목에선 탈락의 고배 마셔

GIST 선수단은 야구를 제외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축구는 UNIST를 상대로 전반전에만 2골을 허용했고 후반전에 추가 골을 내주며 3-0으로 패배했다. 농구 경기는 KAIST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29-56으로 패하며 탈락했다. 배드민턴 남자 복식은 KAIST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0-2(16-25 12-25)으로 패배했다. 여자 복식과 혼성 복식은 모두 UNIST를 상대해 각각 세트스코어 2-0(25-4 25-6)과 2-0(25-9 25-6)으로 무를 끊었다. LOL 역시 UNIST를 상대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 참여한 이경배(물리, 20) 학생은 “재밌는 경기였지만 상대가 워낙 강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화려함과 아쉬움이 공존한 문화공연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는 한편, 장영



구원 등판에 나선 김한성(전체, 21) 학생이 힘찬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KAIST의 최종 우승으로 마무리

축구와 농구, 야구, 배드민턴 남자 복식, LOL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KAIST가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과 혼성 복식 종목에서 우승한 UNIST가 최종 준우승을 달성했고 야구 종목 준우승을 차지한 GIST는 LOL 종목에서 준우승한 POSTECH과 함께 최종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음향기기 사고로 인해 리허설이 지연되고 우천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아 공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GIST 힙합 동아리 이그니션(IGNITION)의 영위너(가명) 학생은 “열심히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의 입장장을 존중받지 못한 기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회를 마무리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스타디움이 단순히 운동경기를 통한 순위 경쟁보다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예лик 기자
key030704@gm.gist.ac.kr

위스키와 어른

음악은 듣다 보면 그 취향에 젖어 들게 된다. Malibu Night이란 노래의 “Too much whiskey in my blood”란 가사와 위스키를 수면제이자 치유 약으로 쓰는 하루기의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롯데마트로 향하게 되는 법이다 - 발렌타인 12년산을 마시고 다시는 이런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리고! 밤이 시작될 때쯤, 롯데마트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일은 크리스마스 전날 엄마를 따라 이마트에 가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 든다. 무슨 일이 생길지, 무엇을 얻을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은 확실한.

하루기와 추천한 위스키는 커티삭과 시바스 리갈이었다. 둘 중 하나를 꼭 마시고 싶었다. 다른 위스키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은 하루기 풍으로 취해보고 싶었으니까. 평소라면 탐냈을 와인들을 제치고 시바스 리갈 12년산을 집어 들었다. 재상이가 추천해준 모

찌렐라와 브리치즈 조합은 덤이었다. 꿈 같은 순간을 위한 입장료치곤 싼 가격에 장을 마무리하고 기숙사로 향했다.

잔에는 위스키 30mL, 조각낸 브리치즈와 몰캉한 모찌렐라, 불을 다 끈 방에 무드등까지. 준비는 끝났다. 책상이 깔끔하지 않은 게 약간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조금씩 훌쩍여봤다.

(후략)

〈위스키와 어른〉 전문은 gistnews.co.kr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신재룡
(전체, 19)

MZ 세대의 새로운 공부법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황재원(고려대), 김윤재(GIST) 학생이다.

를 잡고 있다.

(종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인재 양성사업인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김윤재(GIST), 최승표(순천향대), 황재원(고려대) 학생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세상에 공개하였다.

(후략)

〈온택트 시대, MZ 세대의 새로운 공부법〉 전문은 gistnews.co.kr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재
(전체, 19)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나며 MZ 세대 사이에서는 ‘비대면 스터디’가 새롭게 떠올랐다. 오프라인 학습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MZ 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열쇠를 발견한 것이다. 비대면 스터디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부 방법이다. 대표적인 비대면 스터디 서비스 ‘구루미 캠 스터디’는 하루 평균 45,000명의 사용자가 접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국 23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이 개척한 이 시장은 괄목할 만큼 빠르게 자리

GIST switched to offline classes almost three years after COVID-19

In August 2022, GIST decided to transition fully to face-to-face class. Because of the pandemic, many academic institutions shifted to online classes right after the virus began. GIST also implemented a measure to hold classes via ZOOM or other e-learning platforms for more than two years. However, GIST resumed offline classes starting fall of 2022.

Face-to-face classes capture the essence of university life. The buzz of students running from one class to another, the interaction of students with professors in classrooms, and lively discussion among pupils are necessary to get the best experience out of higher education.

Measures and precautions

GIST implemented several measures and passed several regula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during

offline classes. The lecture classrooms were well-ventilated. A sanitizer and sterilizing wet wipes were also placed in every classroom for students to disinfect their learning spaces.

Even though there was no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the classrooms, the lecture halls assigned to each course were not heavily congested and allowed proper air ventilation, as observed by GISTNEWS.

Concerns and challenges

The primary concern behind resuming offline classes after the pandemic was the spread of coronavirus. The pandemic has altered the 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All around the world, academic institutions are experimenting with various instructional approaches to deliver the best education for their students through online, offline, or hybrid learning methods.

Before the aftermath of COVID, students and teachers found 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in person easier than on their computer screens. But after more than two years of screen interaction, students have adapted —and now even prefer—on-screen interaction over in-person communication. Therefore, institutions have a role in helping students rebuild their social skills to be comfortable with physical communication again.

In addition, schools should provide restoring routines for students who cannot attend class in real-time, say, because of COVID. GISTNEWS inquired whether professors at GIST are conducting classes online for students who caught the virus and cannot attend classes due to quarantine. We found that only a handful of professors have a hybrid system of education for students to aid them so they will stay caught up. Other

professors compensate in several traditional ways, such as one-to-one question-and-answer sessions.

Altogether, the COVID pandemic has forced us to make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nline. As restrictions have eased and humans are more adapted to the virus, making it less deadly than it once was, we found ourselves falling back to the way things were before the virus. The shift to offline class after all this time has been challenging. However, the offline semester at GIST has been going smoothly so far. The professors at GIST are enthusiastic about interacting with their students in person. Students are getting more out of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as there are fewer distractions, more interactions, and generally higher enthusiasm.

Opinions of GIST students and professors

COVID-19 and strict social isolation have undoubted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ducation sector with students confined to their computers all day. Hence, this transition to face-to-face classes must surely be a relief for students. However, students who have only known online courses and have never attended offline classes at GIST might have unforeseen issues. GISTNEWS met several students and professors and discussed what it is like switching to an offline class.

Benefits of offline classes

Offline classes are much less distracting than online classes. One sophomore student at GIST said, "[In my opinion,] just being present physically in the classroom with all those people around you, the teacher standing right in front of you and occasionally looking straight at you, makes the probability of zoning out much less likely."

It is known that students' attention span is generally around 10 to 15 minutes. If not guided by the constant incentive to keep paying attention in classes, like direct interactions among

students or students and professors, distractions come quickly, as observed in online courses.

"I love interaction!" exclaimed Professor Sthiannopako from the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who teaches one of the most crowded classrooms from the courses offered this semester with over 100 students.

The professor explained the value of interaction as it allows students to exchange thoughts on various topics. Moreover, student-led online discussions often encourage excellent learning while producing interesting personal applications of course topics and theories.

It's no wonder that interaction promotes communication, helping students improve the social skills requir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assert their opinions. Expressing yourself to get the point across and persuade others is essential in all fields of study, but people often underestimate its significance in science and engineering.

GISTNEWS asked two first-year students whether offline education

helps them improve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They explained that even though communication is possible through online education, delivering a speech in front of people i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alking in front of a screen.

Drawbacks of offline classes

Practice-based learning, a crucial element in education, is quite impossible to achieve in online education. There is a saying that a child does not learn to walk by studying; it does so by trying to walk and falling over. Theory-based learning is good for maximizing our awareness regarding a particular subject but practicing it will enable us to apply it in real life. In short,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lies behind its applicability which is done so by practice. However, some students we interviewed were not entirely thrilled by offline classes.

"I can't record my lectures anymore," said one student who wanted to remain anonymous. "So, I struggle with studying and keeping up with my courses."

Another student added, "It was easier for me to manage my time and be more efficient when classes were online. I

could also attend class from any place instead of one classroom for the whole semester."

"Offline classes in GIST have not really changed. But professors are more open-minded and tech-savvy now than before the pandemic," Ryu HyeonSeok, a senior GIST student, said while comparing current offline classes to pre-pandemic times. This shows that online education has taught us some perks we can implement to improve education.

Students' preference on whether they like online or offline classes ultimately depends on what type of student they are and which class suits them most. Online classes offer convenience and flexibility, while traditional classrooms provide personal interaction with professors and classmates. However, this shift is not just about the convenience of an in-person class or the ability to physically attend a class. It is done to provide students with hands-on learning opportunities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thrive in their studies.

오피니언 & International

Campus

What about GIST's other indicators?

GIST is ranked fourth in the world and first in Korea in the index for citations per faculty, which is the source of the institution's pride and status. Moreover, compared to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sources, GIST significantly surpasses its development objectives in various indicators.

Various university indicators

Every year,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al evaluation institutions, and media companies create indicators based on different standards and announce university rankings and university evaluations.

Among the various university evaluation and indicators, GIST focuses on QS World University Evaluation, QS Asian University Evaluation, the Asian University Evaluation, and Nature Index – Academic Evaluation.

Particularly, GIST focuses on managing the ▲citations index per professor, ▲the number of papers per teacher, ▲the number of citations per thesis.

GIST's QS evaluation

The QS is a university ranking published by Quacquarelli Symonds, a British university rating agency. This evaluation is made with indicators and weights of 40 points for academic assessment, 20 points for paper citations, 20 points for students per faculty, 10 points for graduate reputation, 5 points for foreign professors, and 5 poi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GIST was ranked 288 in the world with 36 points out of 100 possible points. KAIST was ranked 41. GIST received 100 points for the number of citations per faculty in each index but only 14.5 points for student performance and 6.6 points for faculty performance. In addition, the student-to-faculty ratio received 39.2 points and 34.5 points for the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Every university indicator and ranking have their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so you should not blindly trust certain indicators. The advantage of GIST is that, as everyone knows, its research results are excellent enough

to publish many high-quality papers in journals with a very high citation index. However, the indicators show that GIST needs to improve its low reputation, increase exchanges with foreign institutions, and increase the number of faculty to receive better evaluations and to achieve GIST's goals.

GIST's response to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s

For various indicators, GIST is monitored by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GIST pointed out that the employment and employee retention rates are disadvantageous due to the na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at it is difficult to do an industry-academic internship in the fourth year because of the lack of student employment programs. The poor performance of student indicators mentioned above is hence attributed to this factor. In addition, the employment rate index is a disadvantage because it is calculated based on employment among

graduates, excluding advanced students, enlisted stu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ccording to staff at the Section of Public Affairs. For example, KAIST, UNIST, and GIST were ranked 36, 37, and 38 out of 38 universities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respectively, pointing out problems with the index it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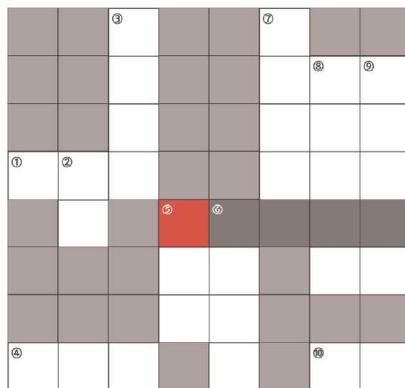
Following the release of these statistics, GIST will report the data,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for deficiencies, and conduct discussions, according to staff. For example, it is expected that GIST's ranking will gradually rise by introducing the analysis tool, by presenting permanent and overseas promotional articles to enhance reputation, by attending seminars at university evaluation institutions, by sending GIST promotional emails to overseas researchers, and by operating university evaluation Task Forces.

Reporter Sangwoo Kim

(swkim0211@gm.gist.ac.kr)

(translation: Sangwoo Kim, proofreading: Ellis Lee)

십자말풀이



지난호 정답

큐	브
탄	위
소	성
중	설
립	네
S	키
G	오
G	스
K	비
A	크
R	에
I	테
F	트
B	체
L	체
O	인
N	트
D	리
U	스
E	트
N	트
T	리
O	트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S	리
T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	리
R	트
I	리
A	트
M	리
E	트
H	리
E	트
N	리
S	트
E</td	